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민주 도지사 경선 '결선으로 결정'

김관영·안호영, 결선행  
김윤덕, 탈락 후 안지

金 "민심·당심민고 갈 것"  
安 "새로운 미래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결선에 진출한 김관영, 안호영 후보가 2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결선 투표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먼저, 안호영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1차 경선에서 보내주시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 드린다"며 "함께 선전해 주신 김윤덕 의원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말 고맙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오전에 김윤덕 후보를 만나 힘을 합쳐 전북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가기로 했다"라며 "이 자리에서 김윤덕 의원은 안호영 의원의 승리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김윤덕 의원의 훌륭한 공약과 정책을 잘 받아서 전북도민을 위한 귀한 자산으로 만들겠다"며 "김윤덕 의원과 함께 미래 신산업으로 100년 먹거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김윤덕 의원은 이미 제가 대표 발의한 전북새마을특별자치도 법안에 흔쾌히 서명해 주신 바 있다"면서 "앞으로 전북 발전을 위해 김 의원과 긴밀히 상의하고, 도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그러면서, "당이 어려울 때 민주당을 떠난 사람이 도지사가 될 수 없다"며 "도민들의 정서에는 민주당을 지킨 도지사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누가 진정으로 민주당을 지켜왔는지, 전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책임자인지 판단하고 힘을 모아 달라"며 "김윤덕 후보와 손 잡고 전북도민의 하나 된 힘으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의 전북지원봉사센터 압수수색에 대해선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지방선거 관련 사실이 있다면 하루빨리 진위를 파악해 도민에게 밝혀주길 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은 김관영 후보와 안호영 후보의 결선으로 치러지는 가운데, 결선에 진출한 안호영 후보가 2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윤덕 의원과 만나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 왼쪽) 같은 날 김관영 후보가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

라"고 말했다.

이어, 기자회견을 연 김관영 후보는 "출마선언 한 달 만에 도민과 당원들이 함께, 한 달 만에 이뤄낸 기적이다"라며 "깨끗하고 유능한 김관영과 무능한 구태정치와의 대결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돈 선거, 편 가르기 근거 없는 네거티브로 당을 분열하는 구태정치를 청산해야 한다"며 "전북 발전을 위해 별다른 성과도 없으면서 갈등만 조장하는 무능한 정치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과거를 외곽 표현하고 유리하게 해석해 재생산하는 분열의 정치는 민주당의 통합·혁신정치에 반하는 것"이라며 "과거보다 미래를 얘기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들의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이 변화의 물풍을 만들어 유능한 경제도지사 후보 김관영을 키워왔다. 대통합과 혁신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후보는 "무능한 구태정치가

민심의 대세를 꺾을 수는 없다"며 "민심의 대세는 깨끗하고 유능한 김관영으로 기울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1차 경선에서 탈락한 김윤덕이 결선 상대인 안호영 후보를 지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며 "민심과 당심을 믿고 뿌박뿌박 헤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도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도지사가 되겠다"며 "전북의 혁신성장 산업생태계 대전환을 이뤄내겠다. 도민을 모시고 섬기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 전북도지사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 후보가 나오지 못해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결선 투표를 실시해 최종 전북도지사 후보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김윤덕 경선 후보는 1차 경선 투표에서 3위를 기록, 결선 투표에 진출하지 못했다.

결선투표는 오는 28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시작으로, 27, 28일 ARS

방식의 아웃바운드 여론조사를 진행하며, 투표하지 못한 권리당원은 28일 직접 전화로 걸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최종 후보는 1차 경선과 마찬가지로 권리당원 50%와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 50%를 합산해 선출된다.

초박빙의 싸움으로 전개된 전북도지사 경선은 마지막까지 예측불허의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이번 결선 투표는 3위를 한 김윤덕 의원의 조직과 지지자들이 누굴 선택할지가 변수로 떠오른다.

김윤덕 후보는 지난 23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모든것이 저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최선을 다했지만,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전북 정치권의 일원으로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당 아닌 군민 평가 받을 것"

최영일 순창군수 예비후보, 무소속 출마 선언

"민주당 위한 헌신이 '공천 배제'로 참담해"

최영일 순창군수 예비후보가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최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떠난다"며 "민주당을 잠시 떠나 무소속 순창군민 후보로 출마해 당당히 군민들의 선택을 받겠다"고 말했다.

최 예비후보는 지난 18일 민주당 전북도당의 컷오프(공천배제)와 중앙당 재심위원회의 재심신청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 예비후보는 "진심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왔던 공은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고, 오직 과민 평가하는 이번 공심위의 결정에 대해 서운함을 금할 길 없다"고 눈시울을 붉히며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지난 10년간 몸 담았던 민주당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이 상황을 군민 여러분께서 이해와 용서하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순창군 총괄선대본부장의 직책을 맡아 새벽 바람을 마다하지 않고, 해가 지는 저녁까지 곳곳을 누비고 외쳤다"면서 "그 결과 전북 14개 시·군에서 최고 득표를 얻었고, 전북도의원 재입기간 정당공천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당 대표로부터 2차례에 걸쳐 1급 포상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분명한 것은 KBS·전북일보, 전주MBC·JTV전주방송·전라일보·전북도민일보 여론조사에서 50%가 넘는 1위 후보 최영일이 공천에서 배제됐다. 오직 정성적 평가에 의한 결과"라며 "심정이 찢어질 듯 아팠고 괴로웠다. 반드시 군민의 선택을 받아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 순창군

민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최 예비후보는 기자회견 내내 여러 차례 울먹이며 "한 번의 실수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며 "구렁텅이에 갇혀버리게 됐다"면서 "무소속 군민후보로 나서 당이 아닌 군민들의 평가를 받을 아무것도 없다"면서 "그 결과로 다시 돌아갔다"고 강조했다.

최영일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누구를 탓하지도 원망하지도 않겠다. 언제나 그랬듯이 최선을 다해 뛰고 또 뛰겠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민주당의 최영일이 아니어도 항상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노력하고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비록 어렵고 힘든 길일지라도 이번 기회에 꼭 기록권의 폐해와 분열, 그리고 독식의 연결 고리를 끊어내겠다"면서 순창개혁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유호상 기자



최영일 순창군수 예비후보가 지난 22일 전북도의회에서 무소속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민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최 예비후보는 기자회견 내내 여러 차례 울먹이며 "한 번의 실수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며 "구렁텅이에 갇혀버리게 됐다"면서 "무소속 군민후보로 나서 당이 아닌 군민들의 평가를 받을 아무것도 없다"면서 "그 결과로 다시 돌아갔다"고 강조했다.

최영일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누구를 탓하지도 원망하지도 않겠다. 언제나 그랬듯이 최선을 다해 뛰고 또 뛰겠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민주당의 최영일이 아니어도 항상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노력하고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비록 어렵고 힘든 길일지라도 이번 기회에 꼭 기록권의 폐해와 분열, 그리고 독식의 연결 고리를 끊어내겠다"면서 순창개혁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유호상 기자

## 전북도, 6월까지 대도민 테마제안 공모 추진

전북도는 도민과 공무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오는 6월 30일까지 2022년 전북도 테마제안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테마제안 주제는 ▲인구 유입을 위한 청년인구 귀향·정착 방안, ▲배달 음식·배달포장 쓰레기 줄이기 방안이다. 해당 주제는 올해 처음으로 진행한 도민 대상 선호도 조사 결과로 반영해 선정됐다.

이번 공모는 다시, 여기! 새로운 삶 전라북도 라는 큰 방향에서 도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통해 체감도 있는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접수는 국민신문고 (<http://epeople.gks.go.kr>)를 통한 온라인과 우편, 방문 등 오프라인 방식 모두 가능하다.

유호상 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일상회복 전환 '지름길'

무채꽃과 함께하는  
**제19회 청보리밭축제**

2022. 4. 30일 ~ 5. 15일 15일간  
(단, 교통통제 및 입장객 방역기간 : 4. 23~5. 15까지)  
고창군 공음면 학원관광농원 일원

주최 | 고창군 주관 | 고창청보리밭축제위원회 후원 | 전라북도 한수원주 한빛원자력본부